

무등산·월출산 생태계 교란식물 급속 확산

돼지풀·도깨비가지 등 토종식물 서식지 잠식

당국 지속적 제거작업 불구 빠른 속도로 번져

국립공원인 무등산·월출산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산들이 외래 식물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좋아 서식 조건만 좋으면 1년 새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중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벌인 뒤 그 자리에 토종 식물인 산철쭉 3000그루(면적 900㎡)를 심을 계획이다.



돼지풀



도깨비가지

그럼에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외래 동·식물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외래 동·식물이 국립공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내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분포 면적은 30만6809㎡다. 이는 축구장 43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난 2009년 30만4813㎡보다 200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리산의 경우 분포 면적이 ▲2009년 1만2420㎡ ▲2010년 1만955㎡ ▲2011년 1만4192㎡ ▲2012년 2만1200㎡ ▲올해 1만66630㎡로 4년 만에 약 4000㎡ 이상 증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4호 태풍 '다나스' 북상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었던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이 휘어질 정도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공원인 무등산·월출산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산들이 외래 식물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립공원 내 외래종 분포 및 방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에 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돼지풀이 축구장(7140㎡) 크기인 8750㎡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원효 분소~군 부대 정문 탐방로·장불재·입석대·당산나무 등지에서 직원 140명을 동원해 돼지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무등산 관리사무소측이 제거 작업을 벌인 면적도 무려 1만1500㎡에 달한다. 하지만 돼지풀 퇴치작업 속도에 비해 번식력이 너무 빨라 대체할 토종 식물 식재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출산도 돼지풀·도깨비가지·물참새피 등 외래식물 3종이 도갑사·월출 목장 등 8600㎡에 걸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래식물 서식면적은 지난 2010년 1만1320㎡에서 2011년 8250㎡로 3070㎡ 정도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5500㎡로 급증했다는 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유자차

판매금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고흥군에 위치한 '백마농원'이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도 않고 '친환경 유자차'를 만들어 판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백마농원의 주인 김모(여·34)씨는 병원에서 직접 채취한 유자를 활용해 총 1159kg의 유자차를 만들었고,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쓰지 않고 개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태풍 '다나스' 큰 피해 없이 남해안 통과

장흥·강진 등 5개 시군 주의보 해제...여객선 한때 통제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8일 밤 남해안을 통과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8일 오후 6시를 기해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 5개 시·군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를 해제한 데 이어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내려진 태풍 주의보도 이날 밤 9시를 기해 해제했다.

앞서 오후 5시에는 남해서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대체했다.

기상청 등 재난 당국은 8일 오후 8시 현재까지 흑산도, 홍도에 발표된 강풍주의보는 발효를 유지, 흑시 모를 피해에 대비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수·완도 여객선터미널을 통과하는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한 때 바람이 거세게 불

면서 전남 지역 일부 수산양식장과 농작물 등이 휩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5년만의 가을 태풍인 '다나스'는 부산과 독도를 거쳐 9일 일본 센다이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잠 많이 잘수록

치매 위험 높다

수면시간이 지나치게 긴 노인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 그만큼 치매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병원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 공동연구팀은 하루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노인은 6~8시간 수면을 취하는 노인에게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거의 2배 빠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3분 해질 18시 06분 달출 10시 44분 달몰 21시 13분

맑게 갠 하늘
흐린 가운데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맑음	18/27℃
목포	맑음	18/26℃
여수	맑음	20/26℃
나주	맑음	16/26℃
완도	맑음	20/27℃
구례	맑음	16/27℃
강진	맑음	19/27℃
해남	맑음	19/27℃
장흥	맑음	19/27℃
순천	맑음	15/26℃
영광	맑음	17/26℃
진도	맑음	20/25℃
전주	맑음	17/26℃
군산	맑음	17/26℃
남원	맑음	16/26℃
흑산도	맑음	18/22℃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경고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경고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04:40 09:4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1:43 05:0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23:49 17:46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5	18/23	13/24	11/25	12/24	10/18

수능 영어 A/B형 고사장 분리

유형별 다른 시험장...수험생 사전 확인 잘해야

다음달 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영어 영역의 A/B형 선택에 따라 다른 고사장으로 분리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같은 고교 재학생이라도 영어 선택 유형에 따라 고사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시험을 치를 고사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영어 A와 B형은 듣기 평가 문제가 다른 만큼 A/B형 선택 수험생을 다른 고사장에 분리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며 “영어 A/B형 분리로 고사장 수는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85개 시험지구별로 영어 A형과 B형 응시생을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배치계획안을 2~3일 내에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수가 많지 않아 분리 배치가 어려운 군 단위는 한 학교

에서 시험을 보되 A/B형 응시생을 다른 등에 배치하거나 단일 건물이면 층별로 분리 배치하도록 했다.

단일 건물에서 A/B형 응시생들이 층별로 나뉘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층에 따라 A/B형 듣기평가가 방송되도록 이원 방송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A형 응시생들이 적은 학교의 경우 고사실 내에서 듣기평가 내용을 담은 CD를 틀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의 선택 비율은 A형이 31.8%, B형이 68.2%다.

영어 A/B형 분리 배치로 전체 고사장 수는 기존 수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남녀 수험생의 분리 배치가 원칙이었다. 시험지구별로 여권이 되면 수리 가/나형, 탐구영역 선택과목, 제2외국어 선택 여부에 따라 수험생들을 나눠 배치했다.

올해 수능별 수능으로 기존 남녀 구분에서 영어 A/B 구분까지 하게 돼 시험장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본문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 코

코속에 부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비염·축농증/ 만성비염(염), 알레르기, 비염합병증의 과잉으로 인한 항균·항염·항바이러스 성분
- 피부과/ 안과에 깊은 눈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용액 유지
- 후대편안!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각지 관하여 이물 시 후대 간편
- 안심사용! 온가족이 상하에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차형 6개의 알러지유형

아이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성분: 200ml 용량의 비액 용액 / 용량 / 용법: 용액에 따라 용액 1ml 당 4~8방울씩 2~3회 분사하십시오. *본문, 용법에 따라 용액 분사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문의: 1202-0705 인터넷 약품을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통약품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알레르기 비염, 콧속 염증으로 답답한 코

똥 코

코속에 부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비염·축농증/ 코가꾸기 인공염액과 용액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축으로 자극적 용액
- 항염·항염/ 코가꾸기 용액으로 인해, 부비강염으로 인해, 부비강염으로 인해, 부비강염으로 인해, 부비강염으로 인해
- 후대편안!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각지 관하여 이물 시 후대 간편
- 안심사용! 온가족이 상하에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차형 6개의 알러지유형

아이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성분: 200ml 용량의 비액 용액 / 용량 / 용법: 용액에 따라 용액 1ml 당 4~8방울씩 2~3회 분사하십시오. *본문, 용법에 따라 용액 분사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